

국보 '진남관' 내년 말 관람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복원 마무리...덧집 해체·주변 정리 6개월 추가 소요 여수시 "호국충절 여수의 상징 '진남관' 안전하고 완벽하게 복원"

여수시의 자랑인 국보 제304호 '진남관'의 보수정비 사업이 2023년 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수시는 내년 상반기 진남관 복원을 완료하고, 덧집 해체와 주변 정비까지 6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돼 일반인이 진남관을 관람할 수 있는 시기는 2023년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체 보수를 마치고 바로 세워진 진남관과 매장돼 있을 문화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덧집을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진남관은 건물 뒤뜰림과 지반하부 침식 등 구조적인 불안정으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2013년 전면 해체 보수가 결정됐다. 관련 절차와 설계 등을 거쳐 2018년 본격 해체됐고, 현재는 초석 설치를 완료했으

며 다음 단계로 기둥을 세우고 조립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시는 진남관 보수는 올해 8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전면 해체 후 발굴조사와 복원을 병행하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150억원을 들여 기울어진 진남관을 바로 세우는 '보수정비 공사'와 일제강점기 학교 건물로 사용되면서 변형됐던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도 함께 이뤄진다. 철저한 고증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자문을 통해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2018년 9월 해체 중 진남관 상량함에서 문헌적 가치가 높은 상량기목들 3점이 나왔다. 상량함을 개함하는 과정에서 목판 1점, 절봉함 1점, 상량문 1점을 받

건했다. 진남관 어간(정중앙의 칸) 종도리 하부와 장여 부분에서 나왔다.

문화재청 관계자 등은 종도리 하부에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광무3년(1899) 진남관 부분 해체보수 시 상량된 것으로 분석했다. 상량기목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센터에서 보존 처리하게 되며, 상량문 내용은 전문가 조사를 거치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문화재 복원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 공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면서 "호국충절의 고장, 우리 여수의 상징인 진남관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복원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남관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면 15칸, 측면 5칸, 건물면적 748.39㎡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현존하는 지랑 남아 건물 중에서 가장 크다. 1963년 1월 보물 제324호로 지정된 이후 2001년 4월 17일 국보 제304호로 승격됐다.



해체 전 진남관 전경(왼쪽)과 해체 후 보수공사중인 진남관 내부 모습. 현재 초석 설치를 마친 상태다.



<여수시 제공>

고흥군,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매각

40년 경작 임대계약자들 고령화에 소유권 확보도 안돼 군, 농축산식품부와 수의계약 방식 매각 협의 진행 중

고흥군이 해창만간척지의 임대농지 628필지 225ha가 임대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다.

고흥군에 따르면 해창만간척지 임대농지는 1984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지역 농어민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해 하고 있다. 포두·점암·영남면 주민 306명은 매년 고흥군과 임대계약을 체결해 해창만간척농지를 경작해왔다. 하지만 임대계약자들은 40여년 가까이 간척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일시 경작자 지위에 머물러 있어 큰 불편을 나타내고 있다.

군이 매각추진 중인 임대농지는 1998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해창만 간척농지 1006ha에 대한 매각승인을 얻을 당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곳은 침수로 인해 집단 민원이 우려되면서 매각도 보류된 농지였다. 임대농지 구역은 대규모 경지정리와 배수개선 사업을 통해 침수위험이 해소됐으나 현재까지 매각

을 해주지 않아 임대계약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계약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임대계약 체결 절차의 불편 호소도 많았다. 매각을 통해 계약 절차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도 끊이지 않았다. 군은 해창만 간척지 임대농지 계약자들의 불편 해소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전남도를 경유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임대농지를 매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다.

1984년 이후 임대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작을 해 온 임대계약자들은 임대농지임에도 복토 등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수년간 노력하기도 했다.

고흥군은 임대농지를 40여년간 소유자 입장에서 선량하게 관리해 온 임대계약자들의 열의와 특수성을 감안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주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창만 간척지의 임대농지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임대계약자들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고흥 해창만 간척지. 40여년간 임대로 경작중인 농민들의 숙원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고흥군 제공>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영농여건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숙원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 봉성산 봉덕정 활터, 군민공원으로 훼손된 산지 복구 협의...이전 후보지 물색

불법 산지 훼손으로 자칫 군민을 돌로 갈라 놓을 뻔한 구례 봉성산 봉덕정활터확장공사(광주일보 1월 11일자 15면 보도)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활터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례군은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 활터의 봉덕정 대표,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과 의원 등 4차 대표가 수 차례 회동한 끝에 봉덕정 활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훼손된 산지를 안전하게 복구해 군민공원을 만들기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자칫 미숙한 행정 처리로 동료 공무원들

을 고발하는 등 나쁜 전례를 막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행정의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로 논란이 됐던 산지 훼손지 복구 공사는 구례군과 주민들이 각각 추천하는 4인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활터는 조만간 후보지를 물색해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례 봉덕정 활터는 올해로 100년을 맞은 유서 깊은 곳으로 그동안 많은 명공과 명사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구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 온 곳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 국토부 스마트시티 사업 선정...40억 확보

곡성군이 육과면에 4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2년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광주전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고 밝혔다.

중소스마트시티사업은 인구 100만명 이하 중소 규모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 선정에 따라 곡성군은 40억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있는 육과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도농복합지역인 육과면은 교통과 환경, 안전, 생활 등 4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 스마트 주차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내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무단투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와 재활용 PET 수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안전 분야는 스마트 홍수관리, 스마트 가로등을 도입하고 교통, 환경, 안전 솔루션과 연계해 스마트 버스 쉼터와 스마트 벤치, 스마트 노면 LED 등을 설치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미니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순천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 신설

순천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 TF팀'을 신설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중대재해TF팀은 중대 재해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TF팀은 재해예방 예산편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홍보, 교육 이수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중대 재해 발생 예방에 주력하게 된다.

이에앞서 순천시는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순천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안전도시 순천" 완성을 위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순천시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원정기업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사망자 발생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